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학과	아동복지상담과
학번	202537024
이름	최상은
담당교수	옥필훈교수님
제출일	2026-05-27

영화 증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한 소녀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진심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나는 평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고,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이며,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와 감동만 주는 영화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태도를 돌아보게 만든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

영화의 주인공 순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이다. 그는 성공과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그는 어느 날 한 노인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면서 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다. 그리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고생 지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호는 처음에는 지우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증언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우의 증언을 흔들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호는 지우와 여러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점점 그녀를 이해하게 된다. 지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달랐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특히 자신이 본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순호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켰다.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우가 순호에게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묻는 부분이었다. 단순한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은 순호의 마음을 흔들었고, 영화를 보는 나에게도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이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며 때로는 양심보다 현실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우는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보다 진심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을 겉모습이나 장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크게 느꼈다. 사실 나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먼저 어렵게 느끼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영화 속 지우를 보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구분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지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인물처럼 느껴졌다. 또한 순호가 지우를 만나며 점점 변화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 깊었다. 처음에는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점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느꼈다.

영화는 장애인을 단순히 불쌍하거나 특별한 존재로만 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지우는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 속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었다.

영화 「증인」은 단순한 법정 영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통해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누군가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또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과 배려라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 「증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한 편의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